

# 광주극장 옆 '영화가 흐르는 골목'으로...

광주극장 옆 50m 정도의 조그마한 골목길(광주시 동구 충장로 45번길).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공간이지만 골목 입구, 촌스런 모습의 간판들이 눈길을 끈다. '암표', '초만원사레', '년소자입장불가', '간판살', '근일개봉' 등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1960~1990년대 극장 관람문화 키워드가 쓰여진 간판들은 옛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86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광주극장은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단관극장으로, 개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영화와 수많은 이벤트들을 선보여 오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그 옆 골목길은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쓰레기와 잡목으로 가득해 사람들의 눈길조차 받지 못했다.

최근 이곳이 영화가 흐르고, 사람이 다니는 '영화가 흐르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 칙칙했던 골목길이 광주시 동구가 추진한 주민주도 골목재생사업 '골목재생 로컬랩 2.0'을 통해 옛날 극장과 영화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공간으로 꾸며진 것이다.

'영화가 흐르는 골목' 조성에는 독립서점 리오피유 윤재경 대표, 독립서점 소년의 서 임인자 대표, 극장 문화연구소 위경태, 박태규 화백, 이선미 작가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먼저, 골목에 들어서면 벽들로 만들어진 벽에는 오즈 야스지로, 짐 자무쉬,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등 씨네필이 사랑한 감독들의 초상화와 작품이 전시된 아트무비 월을 볼 수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극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인 '광주의 극장문화사' 아카이빙 월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1935년부터 1950년대까지 광주를 대표하는 극장들과 그 당시 상영된 영화들을 흑백사진과 신문기사, 광고 등으로 보여준다. 또, 1917년 광주좌에서 1999년 엔터시네마까지 광주의 극장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널간판도 볼 수 있다.

반대편에 있는 '광주의 극장도'는 무등극장, 제일극장, 현대극장, 아카데미극장, 신동아극장, 태평극장, 아세아극장 등 지금은 사라진 광주지역 극장의 지도를 보여준다.

'영화 홍보' 아카이빙 월은 영화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 봄·여름·가을·겨울을 주제로 옛날 방식으로 그린 영화 포스터와 간판, 전단 등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옆에는 광주극장 개관 당시 매표소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메모리 월'은 관객들의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영



광주극장 2층 '광주극장 연대기' 전시장

광주극장 옆 골목길이 최근 옛 극장과 영화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영화가 흐르는 골목'으로 재탄생했다.



화감독들의 초상화와 함께 영화 주요 장면을 손 그림으로 그린 작품들을 전시중이며, 대부분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광주의 22개 극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저녁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가 지면 골목길에 조명이 켜져 더욱 반짝이고 화려한 골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광주극장 2층에는 '광주극장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곳 안쪽에는 광주극장 연표가 붙여있어 광주극장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화해온 영화 티켓, 짐 자무쉬 특별전 그림티켓, 오래된 타자기 등 옛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다양한 소품들도 가득하다.

한쪽에는 차례로 1970년대 광주극장 소개 표지,



동구 골목재생사업...추억공간으로 '아카이빙 월' 간판·광고 등 한눈에 광주극장 2층엔 '연대기 전시장'



1970년 경찰의 날 특별감상권 발행 안내문, 방송국 광고의뢰 안내문, 1969년 정부시책 계몽영화(문화영화) 상영 중지 안내문, 광주극장 영화티켓에 사용된 나무도장 등이 전시돼 있으며, 국내영화잡지인 '영화세계(1954)', 일본영화잡지 '스크린(1962)', '영화친구(1956)' 등 옛 영화잡지도 볼 수 있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리사이틀, 2월 6일 유·스퀘어 문화관

겨울의 분위기가 더해져 한층 더 깊어진 러시아 낭만주의의 매력을 선사할 공연이 펼쳐진다. 첼리스트 박유신(사진) 리사이틀이 오는 2월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 무대에 올랐던 'RUSSIAN CELLO' 리사이틀의 두 번째 시리즈로 희망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을 통해 오늘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관객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열정적인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청중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며 특히 하미마쓰, 룡티보, 킨 엘리자베스 콩구르를 석권한 실력파 러시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1부에서는 미야스코프스키의 '첼로 소나타 1번'과 보로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2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한다. 첼리스트 박유신은 2017년 드레스덴 국립



음대 실내악 콩쿠르 1위, 2018년 야나 체크 국제 콩쿠르 2위, 안톤 루빈슈타인 국제 콩쿠르 2위를 차지한 실력파다. 경희대음대 졸업 후 독일 드레스덴 국립 음대에서 석사 과정, 드레스덴 최고연주자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현재 포항 국제 음악제와 여흥 실내악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전석 3만원. 인터파크 티켓(1544-1555)에서 예매 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우리에게 가족은...

홍광석 작가, 장편소설 '고원의 강' 펴내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이며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

광주일보 신춘문예(1996년) 출신 홍광석 작가가 가족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고원의 강' (책가)을 펴냈다. 소설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가 큰 줄거리다.

해남 출신 홍 작가는 평범한 교사생활을 하던 중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됐던 시절이 있다. 이 기간 중 전교조 전남지부장, 재야단체 민주연합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10년 만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번 소설 제목 '고원' (故園)이란 '옛말'을 의미한다. 조상들이 거닐던 옛 들이면서 마음의 고향이자, '청산에 살리라'라는 가사에 남은 이상향, 그 청산(靑山)이다. '강'은 떠난 고원을 향한 그리움을 새기는 공간이다. 시간을 초월해 회자정리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들이 헤매는 길이다.

소설은 20세에 집을 떠나 서울에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나'가 주인공이다. 아버지의 독선과 강압에 저항하면서 원



초적인 모성을 찾아 헤매던 나는 20년 만에 아버지로 인해 귀향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고향에 자리 잡으면서 지금까지는 아내에게만 맡겼던 두

아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기억을 잃은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면서 고원에 정착한다. 독선과 강압적인 아버지는 시한부 인생이 돼서야 심리적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와 자식, 그런 부모와 자식을 담은 가족은 바꿀 수도 물릴 수도 없는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륜"이라고 말한다.

한편 홍 작가는 장편 '회소곡'과 산문집 '아내의 뜨락'을 출간했으며 현재 '글 쓰는 농부'의 삶을 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